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b>회의명</b>	2024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b>일시</b>	2024. 1. 9.(화) 10:00 ~ 11:15
<b>장소</b>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b>참석 현황</b>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0명 참석, 참관위원 2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b>회의 안건</b>	1. 2024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 심의
<b>회의 내용</b>	<p>1.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li> </ul> <p>2. 2024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p> <p>가. 교육부 등록금 법정 상한 및 주요대학 인상 현황 보고(서울 예산팀장)</p> <p>나.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대학도 전반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동결인 학교도 있는데 한양대학교도 동결 가능한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연세대학교의 경우 전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도 있음.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에서는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 답변함(서울 예산팀장)</li> <li>-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률 조정은 가능한지 질문함. 대학원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인상과 동결에 대한 의견이 각각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1% 정도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1%로는 재정 적자 폭을 고려하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함.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을 위해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 대학원 전체 2%를 2년 연속으로 인상한 경우는 없었다고 함. 등록금 인상을 누적으로 보면 인상 금액이 꽤 크며, 대학원생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함. 아울러, 차기 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 여부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기를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차기 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함. 교육부의 기초를 참고해 보자면, 내년도 총선 이후에는 학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주려는 기초로 알고 있다고 함. 내년부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학부 등록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면 대학원 동결여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li> </ul>

도 감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결국 대학원생에게 재투자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시 신경 써서 대학원을 위한 많은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요청함. 한양대학교가 BK재선정에서 대거 탈락했으며,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대학원에 전반적인 피해가 상당하므로 학교에서도 대학원에 많이 노력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함. 추가 질문으로, 지난번 요청자료 중에서 학생지원비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단과 대학별로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단과대학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함.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70% 정도가 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1월과 2월에 집행될 OT나 새로배움터 등 학생지원비를 고려하면 집행률이 90% 가까이는 될 것이라고 함. 해당 부분은 각 단과대학에 남기지 말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학생지원비 집행 요청은 3년 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부터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단과대학에서 학생지원비 잔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으며, 강의실 개보수도 학생을 위한 집행이지만, 이는 학생지원비 목적에서 벗어난 집행이라고 함.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과대학 학생대표들도 학생지원비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학생처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함. 추가로 예결산 자료에서 세목별로 학생지원비 집행현황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관련 내용은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단과대학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요청자료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현재 RC 자율경영체제에서는 본부에서 공문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그래서 RC 예산 운영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함(총무처장)

- 대학원 대표들이 선발되어 RC 예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아서 대학원 학생의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설명함. 다만, 자율경영체제여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과대학에 학생지원비 집행을 위한 압력을 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함. 작년에도 공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낮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24학년도에 학부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인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 학부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 23학년도에 총학생회에서 특별장학금 폐지 등을 TF 설립을 해서 본부 측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그 당시 폐지를 알렸다고 들었는데, 24학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니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이 삭감되

어 있다고 함. 해당 내용 설명을 요청함. 또한 리더십 장학금과 미디어 장학금도 삭감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리더십장학금은 학비감면성으로 지급하다 보니, 임기 중에 학생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따라서 학비감면성이 아닌 경비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설명함. 특별장학금의 경우 폐지라기보다는 장학금 산정 방식과 운영, 지급하는 방식에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과 예산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함(위원장)

- 특별장학금이 학생 주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TF에서도 조문에 대한 시행 규칙을 새로 개정하였다고 함. 선정 및 지급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하면 특별장학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시행 규칙을 함께 고쳐가는 방식을 제안하며, 여기에 감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ERICA 단과대학별로 학생지원비 집행 금액에 차이가 큰 사유를 설명 요청함. 또한, 단과대학별로 학생지원비 집행률 차이가 큰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RC 예산운영위원회에서 학생 대표가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 당해연도 기조에 따라 학생지원비를 늘릴지, 기계기구매입을 늘릴지 조율하고 있다고 함.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집행률은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단과대학에 배부하는 예산 기준금액이 학생 수인지 RC별로 요청한 금액인지 설명을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기본적으로는 단과대학 등록금을 고려하였고, 실습비나 기초과목 개설여부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으며, 정원 변동이나 충원을 변동시 증감하고 있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언론정보대학과 디자인대학을 살펴보면 학생 수 차이에 비해 학생지원비 차이가 크며, 그 사유를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단과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이 커지면서, 예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RC 예산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은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만큼의 협상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단과대학 자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추후 예산팀에서 RC 예산 관련 교육을 할 때 학생지원비 집행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함(총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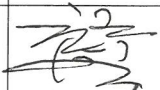





- RC 예산에서 과거에는 코로나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23년 예산에서는 해

당 내역이 없는데, 관련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23년부터는 코로나 예비비를 별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학원 계열 신설과 관련해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함. 해당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일반 대학원에 글로벌 기술경영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신설 계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학과 개설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모집을 위한 브로슈어 인쇄 등을 위해 등록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사전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브로슈어 인쇄 일정으로 인해 관련 등록금 책정 심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만약 필요하다면 대학원에서 신규 계열과 관련해서 충분한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료 제공이 대학원 쪽에서 먼저 제공이 되고 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때 등록금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ERICA 학생인재개발처장)
- 대학원에서 계열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려면 등록금을 새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함. 다만, 일정상 충분한 설명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함(위원장)
- 추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팀에 전달하기로 하며, 추가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함(위원장)

3. 향후 일정 : 제5차회의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4. 폐회선언(위원장)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0명		위원장	위○찬		위원	안○익	
	불참자	1명		위원	이○석		위원	김○은	김포은
불참인원	서울 학생위원 문○원		위원	임○건		위원	문○원		
			위원	이○열		위원	이○빈		
			위원	김○산	김인산	위원	김○현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b>회의명</b>	2024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b>일시</b>	2024. 1. 9.(화) 10:00 ~ 11:15
<b>장소</b>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제2회의실/ERICA 본관 2층 프라임 컨퍼런스홀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진행)
<b>참석현황</b>	참석대상 위원 11명 중 10명 참석, 참관위원 2명 참석, 간사 2명 참석
<b>회의안건</b>	1. 2024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 심의
<b>회의내용</b>	<p>1. 성원보고(서울 예산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 참석으로 성원 보고(서울 예산팀장)</li> </ul> <p>2. 2024학년도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p> <p>가. 교육부 등록금 법정 상한 및 주요대학 인상 현황 보고(서울 예산팀장)</p> <p>나. 내국인 대학원 등록금 심의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는지 질의함(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대학도 전반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동결인 학교도 있는데 한양대학교도 동결 가능한지 질문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연세대학교의 경우 전입금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도 있음.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에서는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 답변함(서울 예산팀장)</li> <li>- 동결이 어렵다면 인상을 조정은 가능한지 질문함. 대학원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인상과 동결에 대한 의견이 각각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1% 정도 인상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1%로는 재정 적자 폭을 고려하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함.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 대학원 생들을 위해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서울 예산팀장)</li> <li>- 대학원 전체 2%를 2년 연속으로 인상한 경우는 없었다고 함. 등록금 인상을 누적으로 보면 인상 금액이 꽤 크며, 대학원생들에게도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함. 아울러, 차기 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 여부 또는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기초를 알려주기를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li> <li>- 차기 학년도 등록금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함. 교육부의 기초를 참고해 보자면, 내년도 총선 이후에는 학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주려는 기초로 알고 있다고 함. 내년부터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학부 등록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면 대학원 동결여부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li> </ul>

도 감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결국 대학원생에게 재투자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시 신경 써서 대학원을 위한 많은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기를 요청함. 한양대학교가 BK재선정에서 대거 탈락했으며, 올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대학원에 전반적인 피해가 상당하므로 학교에서도 대학원에 많이 노력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함. 추가 질문으로, 지난번 요청자료 중에서 학생지원비 집행현황을 받았는데, 단과 대학별로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단과대학이 전체의 60%가 넘는다고 함.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질의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70% 정도가 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금 더 찾아봐야 하겠지만, 1월과 2월에 집행될 OT나 새로배움터 등 학생지원비를 고려하면 집행률이 90%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함. 해당 부분은 각 단과대학에 남기지 말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학생지원비 집행 요청은 3년 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부터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함. 단과대학에서 학생지원비 잔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으며, 강의실 개보수도 학생을 위한 집행이지만, 이는 학생지원비 목적에서 벗어난 집행이라고 함.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과대학 학생대표들도 학생지원비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학생처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함. 추가로 예결산 자료에서 세목별로 학생지원비 집행현황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관련 내용은 잘 정리해서 명확하게 단과대학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요청자료도 정리해서 전달하겠다고 함(서울 예산팀장)

- 현재 RC 자율경영체제에서는 본부에서 공문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함. 그래서 RC 예산 운영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단과대학 학생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함(총무처장)

- 대학원 대표들이 선발되어 RC 예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이 많아서 대학원 학생의 호응도 굉장히 좋다고 설명함. 다만, 자율경영체제여서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단과대학에 학생지원비 집행을 위한 압력을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함. 작년에도 공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률이 낮다고 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24학년도에 학부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25학년도의 경우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 학부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인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 학부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 23학년도에 총학생회에서 특별장학금 폐지 등을 TF 설립을 해서 본부 측과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그 당시 폐지를 압했다고 들었는데, 24학년도 예산서를 확인하니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이 삭감되

어 있다고 함. 해당 내용 설명을 요청함. 또한 리더십 장학금과 미디어 장학금도 삭감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리더십장학금은 학비감면성으로 지급하다 보니, 임기 중에 학생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 따라서 학비감면성이 아닌 경비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설명함. 특별장학금의 경우 폐지라기보다는 장학금 산정 방식과 운영, 지급하는 방식에 개선을 위한 부분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생지원팀과 예산팀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함(위원장)

- 특별장학금이 학생 주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TF에서도 조문에 대한 시행 규칙을 새로 개정하였다고 함. 선정 및 지급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하면 특별장학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시행 규칙을 함께 고쳐가는 방식을 제안하며, 여기에 감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함.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하겠다고 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ERICA 단과대학별로 학생지원비 집행 금액에 차이가 큰 사유를 설명 요청함. 또한, 단과대학별로 학생지원비 집행률 차이가 큰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RC 예산운영위원회에서 학생 대표가 함께 참석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 당해연도 기조에 따라 학생지원비를 늘릴지, 기계기구매입을 늘릴지 조율하고 있다고 함. 단과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집행률은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단과대학에 배부하는 예산 기준금액이 학생 수인지 RC별로 요청한 금액인지 설명을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기본적으로는 단과대학 등록금을 고려하였고, 실습비나 기초과목 개설여부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으며, 정원 변동이나 총원을 변동시 증감하고 있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언론정보대학과 디자인대학을 살펴보면 학생 수 차이에 비해 학생지원비 차이가 크며, 그 사유를 요청함(ERICA 총학생회장)

- 단과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이 커지면서, 예산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함(ERICA 예산팀장)

- RC 예산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은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만큼의 협상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단과대학 자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추후 예산팀에서 RC 예산 관련 교육을 할 때 학생지원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함(총무처장)

- RC 예산에서 과거에는 코로나 예비비를 편성하였는데, 23년 예산에서는 해



당 내역이 없는데, 관련 설명을 요청함(서울 52대비상대책위원장)

- 23년부터는 코로나 예비비를 별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학원 계열 신설과 관련하여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함. 해당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 과정에 관해 설명을 요청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일반 대학원에 글로벌 기술경영학과가 신설될 예정이며, 신설 계열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학과 개설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모집을 위한 브로슈어 인쇄 등을 위해 등록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함(서울 예산팀장)
- 등록금 책정을 위한 사전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차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함(대학원 총학생회장)
- 브로슈어 인쇄 일정으로 인해 관련 등록금 책정 심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만약 필요하다면 대학원에서 신규 계열과 관련하여 충분한 자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료 제공이 대학원 쪽에서 먼저 제공이 되고 개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때 등록금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ERICA 학생인재개발처장)
- 대학원에서 계열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려면 등록금을 새로 책정하여야 한다고 함. 다만, 일정상 충분한 설명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함(위원장)
- 추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팀에 전달하기로 하며, 추가 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함(위원장)

3. 향후 일정 : 제5차회의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4. 폐회선언(위원장)

참석현황	참석 대상자	11명	참석자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참석자	10명		위원장	위○찬			위원	안○익	<p>이 다 빈</p> <p>김 제 훈</p>
	불참인원	서울 학생위원 문○원		위원	이○석			위원	김○은	
위원			임○건			위원	문○원			
위원			이○열			위원	이○빈			
위원			김○산			위원	김○현			
위원			박○학							
간사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김○준					
간사	소속 : ERICA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부장 (예산팀장)		성명 : 서○민					
간사	소속 : 서울 총무처 재무팀		직위 : 부장 (재무팀장)		성명 : 배○진					
작성자	소속 : 서울 기획처 예산팀		직위 : 대리		성명 : 유○규					